

지 상 범 석

“사람노릇을 못해요”

“화두도 내가 들고 망상도 내가 냅니다 나 자신과 싸워 이겨야 참나를 찾습니다”

하고 청법하느냐? 형상없으며 뚜렷한 그 한 물건을 일러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한 물건 찾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자나 깨나 밥 먹을 때나 일 할 때나 생각을 일으키는 '이 한 물건이 무엇인가' 하고 일념으로 참구해야 합니다.

하도 번잡한 세상이다 보니 수행자들이 여러가지에 마음을 쓰는 일이 비일비재 한데 그렇게 해서는 다투어볼 수도 없을 공부 밖에 있을 것이 없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자기마음 깨치려 수행자의 길에 들어선 이는 화두 하나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저의 은사인 만공스님은 “사람을 대할 때는 자비심으로 대해야 하지만, 공부를 위해서는 죽음을 각오한 극히 약하고 극히 단순한 마음을 먹어야 한다”고 당부하셨습니다.

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자신의 마음을 깨닫는 공부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수련을 위해 꼭 머리를 쥐고 출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얼마든지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고요한 적정처에서 얻은 공부보다 번잡하고 시끄러운 곳에서 얻은 공부가 더 견고하고 오래갑니다. 번뇌가 많고 번별심이 많은 바로 그곳에 깨달음이 있습니다.

결혼생활 하면서도 수련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부는 좋은 인연으로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열에 아홉은 나쁜 인연으로 만납니다. 기껏 50년정도 같이 사는데 서로 어겨지로 삽니다. 그나마 요즈음엔 특하면 이혼 한다고도 하고... 좋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만공 스님은 “꿈과 생각이 한결같이 공부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장님이 되면 장을 보러 마을에 내려가곤 합니다. 사중의 살림도 장만할 겸 세간사람들과 어울려 절에서는 느낄 수 없는 세간사람들의 삶을 느껴보기 위해서입니다.

공부는 모든 것으로부터 배우겠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일체가 다 나 이념이 없다는 것을 일체로 부터 배우야 합니다. 그러므로 일체가 다 나의 스승입니다.

중생들이 우매한 까닭은 마음공부는 아니하고 먹고 사는데 그걸려서 망상만 익혔기 때문입니다. 이 몸뚱이리가 나쁜 착각하고 명리를 위해 욕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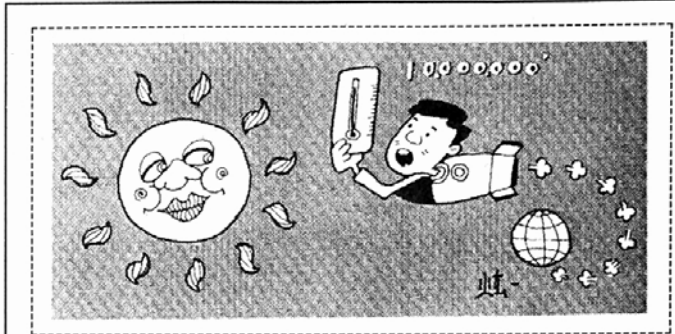
입니다.

이질 법당에 가면 근분이라고 모셔져 있습니다. 원래 이 밑의 마을 처녀였는데 이곳에 나무를 뜯으러 왔다가 도성선사에게 법문을 듣고 사흘만에 득도를 했어요. 이분이 깨달은 내용을 요약하면 '사람마다 나라고 얘기 하지만 나는 존재하는 바가 없다. 다만 씩어서 사라질 이 몸뚱이리가 있어서 말을 하고 시비번별심을 내어 다른 사람과 다름을 보인다.

실제로는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삼라만상이 다 없는 것이다. 또 없는 그것은 빛인가? 없지만 묘하게 있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득도를 하여 평생을 이념에서 대도인으로 사셨습니다. 이렇듯 깨달음에는 남·녀 구별도 없고 그렇게 오랜 시간을 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간절하고 사무치게 참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보다 공부를 명확하고 수월하게 하려면 훌륭한 선지식을 만나야 합니다. 훌륭한 선지식을 만나게 되면 공부기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선지식을 만난 다음에는 철저한 믿음으로써 모든 것을 스승에게 맡겨야 합니다.

만공스님은 “선지식을 믿는 정도에 따라



우리의 우주는 별이나 흑성 등의 천체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평균 거리가 대략 5 광년 정도 되는 우리 은하 안에 있는 별과 별 사이의 대단히 넓은 공간에는 무수히 많은 물질이 존재한다.

연기나 안개와 같이 그 밀도가 아주 적으며 주성분이 수소인 이 물질을 성간물질이라 한다. 이 성간물질은 우주 공간에 균일하지 않게 분포하며, 그 밀도는 시간에 따라 끊임없이 변해 간다. 이것이 성주괴공(成住壞空)에서의 공의 단계이다.

아무 것도 없는 듯 하지만 무의 상태가 아니라 무언가가 이로부터 나올 수 있는, 있는 듯 하기도 하고 없는 듯 하기도 한 그런 상태이다.

그러다가 어느 지점에 성간물질이 어느 정도 이상의 밀도로 모이는 일이 생기면 우주의 진화는 거의 완결하게 된다. 이때에 이르러서 광명이 가해지게

의 결손질량이 E=mc² 이라는 식에 의해 에너지로 변환되고 이 에너지는 빛의 형태로 우주 공간으로 방출된다. 따라서 핵융합 반응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하나의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별이 탄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매일 보는 햇빛도 이런 식으로 태양에서 방출되는 에너지이다. 태양의 경우 수소와 헬륨의 구성 성분비로 보아 약 50억년 전부터 핵융합 반응을 시작하였다고 추산된다.) 이것이 성주괴공의 첫 단계인 성의 단계 즉 탄생의 단계이다. 이로써 별로서의 생명이 시작된다.

이렇게 일단 핵융합 반응이 시작되면 별을 수축시키려는 중력과 별을 확산시키려는 열에너지가 힘의 평형을 이루며, 별은 대체로 일정한 크기를 유지하게 된다. 또한 대체로 일정한 양의 수소를 소모하므로 별의 밝기도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된다.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39
양형진
성주괴공 I

“세속에서도 수행가능... 번뇌에서 지혜 얻어요” 경전정신 모르고 문자 집착하면 공부에 장애

다. 이 마음자리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없습니다. 경허스님은 “오늘은 비록 보편하나 내일은 보편하기 어렵다. 정신바짝 차리고 게으름없이 모든 일에 무심하고 마음에 일 없게 하면 지혜가 자연히 깨닫히고 맑아진다”고 하셨습니다. 화살과도 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잠시도 딴 생각을 내서는 안됩니다.

가끔 교학공부에 대해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치려는 것은 부처님 마음을 내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인데 글로써 부처님마음을 드러내기에 어렵습니다. 오로지 화두하나 붙여잡는 선(禪) 수행을 해야만 그 부처님 마음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조사님들이 선을 최상승법문이라고 하셨지요. 그리고 많은 스님들이 공부에 방해된다고 하여 경을 불사르곤 했습니다.

나의 경험으로 볼 때 반야를 밝히려는 경전의 정신을 모르고 문자에만 집착하면 좋은 부처님의 말씀도 도리어 공부에 장애가 되질않나 생각합니다. 많은 스님들이 현실에서 글을 쓰기위해, 말을 하기위해 또는 남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교학공부

는 인연 만나려면 좋은 일을 많이 해야 합니다. 좋은 인연 만나서 같이 수련하면 금상첨화입니다.

만공스님은 “번뇌를 지우고 지혜를 별도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번뇌가 있되 그 번뇌에 어둡지 않고 번뇌의 실상을 여실히 밝히므로써 번뇌의 당처(當處)에서 지혜를 얻으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생사와 열반이 둘 아님(不二)에 있어서 생사가 끝나고 열반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생사 그자체로서 열반의 모습을 삼는 당시당처(當時當處)의 불이를 강조했습니다. 그리하여 장애의 어떤 시점에 중생의 몸을 여인 부처가 새롭게 오는 것이 아니라, 즉시의 현전에서 업력으로 받은 욕심인 '나'가 있는 그대로 이전과 이후가 아무런 다름이 없이 그대로 부처입니다.

화두도 내가 들고, 망상도 내가 내고, 잠도 내가 잡니다. 거저된 나 자신과의 모든 싸움에서 이겨 참 나를 깨달아야 합니다.

은 정신을 집중해서 일체의 생각들을 쉬고 일념에 들 수 있어야 하며, 일념에 든 나머지 일념이라는 생각조차 있어버린 무념처에 들 수 있어야 합니다. 일념에서 무념으로 무념에서 다시 한결을 더 나아가

“새들의 지저귐 소리를 듣고도
새벽하늘 별빛을 보고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체가 다 마음에 있으니까요”

마하가섭은 일의일발(一衣一鉢) 두타행을 하시고 백장스님은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라(一日不作 一日不食)'는 정신으로 생활했습니다.

몸이 건강하면 공부하기가 수월합니다 하지만 공격적으로 말하자면 몸이 건강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몸이 건강치 않은 만큼 더 절실하게 화두를 들 수도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깊이 들어가면 먹지 않아도 사는 경계가 나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부처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몸뚱이리가 하는 것

나 찾는 공부가 성취된다”고 하셨습니다. 훌륭한 스승은 알게 모르게 제자를 해탈의 길로 인도합니다. 이러한 스승에 대한 신심을 바탕으로 하여 속절없이 은회하는 '나'에 대한 분심을 일으키게 되고 다시 화두에 대한 강한 의심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근본자리를 한번 깨닫고 난 후에도 계속 정진해서 한 두번 더 크게 깨우쳐야 합니다. 그래야 완전한 진리에 도달합니다.

별의 생멸 속에서 출발 곳으로 돌아가 우주는 영원한 것없는 제행무상 세계

되며, 이에 따라 이 덩어리는 더욱 밀집 되려는 경향을 갖게 된다.

이렇게 수축되는 과정이 계속되면 내부 압력이 커지고 온도가 올라가게 되어 밖으로 퍼져려는 경향이 생기게 되지만, 이 성간물질의 덩어리 내에 탄소 등의 고체입자가 소량 섞여 있게 되면 발생하는 열을 장파장의 전자기파 복사로 방출 시키게 되어 열을 식하게 된다. 그런 경우에는 수축 과정이 지속될 수 있다.

이 과정이 계속되어 어느 정도 이상의 밀도가 되면 성간 물질 자체의 중력에 의하여 수축 과정이 가속화된다.(우주에는 기본적인 4가지 힘이 존재하며 이 4가지 힘 중에서 중력은 가장 약한 힘이지만 우주의 진화는 거의 전적으로 이 중력에 의한 것이다.)

이 과정이 지속되면 내부의 압력과 온도는 계속 올라가게 되는 데 온도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뜨거운 난로가 붉은 빛을 발하는 것과 같이) 희미한 빛을 발하기 시작하며, 온도가 1천만도 이상에 이르게 되면 네 개의 수소 원자핵이 결합하여 하나의 헬륨핵을 이루는 핵융합반응이 시작된다.

수소 원자핵 4개의 질량은 헬륨 원자핵 하나의 질량보다 크며, 이 과정에서

별이 커지면 내부의 압력과 온도가 높아 격렬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어 밝은 별이 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어두운 별이 된다. 이러한 안정된 단계는 수십억년에 이르기 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된다. 이는 성주괴공의 주에 해당하는 단계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수소 핵융합 반응은 그 원료인 수소가 다소모이고 나면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으므로 별의 일생은 끝나게 된다. (태양은 약 50억년 정도 핵융합 반응을 더 진행할 수소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성주괴공의 괴의 단계에 해당한다. 이 단계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으므로 다음 글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다.

결론적으로 성주괴공의 원리는 유기 생명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으로 보기에 영원한 것 처럼 생각되는 태양과 같은 천체에 까지 적용되는 우주의 원리라고 해야 할 것이다. 성간물질이 인연 따라 모여 밝은 빛을 뿜어내는 별이 되어 활동하다가 생명을 다하고 나면 다시 한 번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삼천대천세계역시 오로지 연기법의 현현일 뿐이며, 그러므로 제행무상이요 제법무아일 뿐이다.

(고려대 교수·물리학과)

승도인쇄 스티커 전문

불심과 공익정신으로 정성을 다해 제작합니다

문의처 : (02)273-1239
대표 이 강 화합장

정병민을 건강하게
건강인은 마음 건강하게

당뇨
위장·변비·천식 등
질병상담

전화 (02)552-1470(대) / 팩스 562-3205
문의시 상담 및 자료우송
주소:강남구 역삼동 827-4 금강3D/2층

마포 점자 도서관

저희 마포점자도서관은 1990년에 설립되어, 그동안 많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점자(녹음)도서 대출, 청의 출판, 중도실명자 점자교육사업을 비롯하여, 자원봉사자의 모집과 교육을 통하여 낙후된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 현실의 최일선에서 활동해온 시각장애인 복지시설로 함께 하실 회원과 자원봉사자의 신청을 받습니다.

*후원금 동창 안내(월 후원금 3,000원 이상)
-중소기업은행 279-007914-01-017
(사)한국맹인복지연합회
-상업은행 113-05-176427
(사)한국맹인복지연합회

(사) 한국맹인복지연합회 마포점자도서관
서울시 마포구 망우동 461-1
TEL: (02)338-0180 / FAX: (02)337-7251

오직
일념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석조각의 명문 동양석재

- 일찍이 홍익대 조소과를 졸업하고
- 전통 불교문화 창달과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 최저의 비용으로 최고의 작품 제작을 일념으로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 대덕 스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성원 바랍니다.

조각가 이 규 동 합장
대표 이 규 영

동양석재 주안: (0357) 541-4705
야간: (0351) 847-2001

현대불교

생활광고

본 신문은 독자 여러분의 뜻에 따라 꾸며지는 생활광고입니다. 최소의 비용, 최대의 효과 현대불교 생활광고관에서 찾으십시오

- 생활용품
- 개인업체
- 불교관련용품
- 정크로봇, 소식
- 지체용품
- 인쇄
- 각종행사
- 신상품소개

문의
(02)737-8881(광교국)
팩스(02)737-0697

불교서적의 모든 것

운주사

- 종로구 청진동 6번지
- TEL (02) 720-9372~3
- FAX (02) 723-0646

봉축 현수막 전문 제작

공정 직영
삼보기업

전화 (02)279-2715
팩스 (02)275-3739

스님 및 지도교사를 위한
천불가 피아노 반주 3개월 완성

교과특성

개인지도 원칙, 레슨기간 자유선택, 천불가를 통한 음악이론 및 실기지도, 시청청음 별도수업 실시

- 등록: 수시접수(725-7527-9)
- 장소: 불교교육연구원(조계사 옆)

불교교육연구원

인수사찰 증설에 참여하실 분

- 사찰 부지 및 도로 옆 휴게소 가든 건물 55평(현재 성업중)
- 대지 주차장 300평 (매도가 5억원) 신축 모델 부지 1,000평
- 가든 휴게소 건물 2, 3층 모델 증축 가능지
- 농산물·일용생활품 매점 가능지

연락처 집(조선) 0441-851-3866
사찰(12시) 0441-853-2896
FAX 0441-43-7364

* 불교신자·독자가 환영

법당 신축 협찬자 구함

- 충주댐 강변 진입도로변 별장지 계림산 사찰 신축 유지
- 석굴암 본존 석가모니 불상 7자 높이, 굵 50명
- 석가 5층탑 22자 높이
- 관세음보살상 15자 높이
- 아미타불 자상고 5자 높이
- 요사채 2층 방 6) 35평형 1층 방 3
- 대지 706평 도로 포장 시설지
- 현 5억 투자 시설된 곳 이후 5억 투자하실 분 구함
- 향후 법당, 대웅전 증축 요사채 및 산신각 증축 계획
- 기원사찰 신축지 1,000평 내외 양도 가능

* 사찰 운영할 보살, 스님, 독자가 세사생활할 운영할 분 환영